

漁父辭



[해제]

가로 12cm, 세로 16cm 크기의 소책 장정 필사본에 수록된 작품이다. 필사본의 분량은 앞뒤 표지 포함 모두 18장인데, 제10장에서 제16장 사이에 귀글체로 필사되어 있다. 앞표지에는 <민탄가(民歎歌)>라는 작품명 외에도 다른 글자들이 적혀 있으나, 마모가 심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다. 이 <민탄가> 외에도 <작소법(鵲巢法)>, <부귀법(富貴法)>, <척사법(擲柶法)>, <동토경이라>, <축사진언(逐邪嘖言)>, <간귀축귀경(干鬼逐鬼經)>, <간귀경축사진언(干鬼經逐邪嘖言)>, <주자작명법(朱子作名法)>, <한무제어신문답서(漢武帝與神問答書)>, <불설명당경(佛說明堂經)>, <출독진언(出毒嘖言)>, <국명열록(國名列錄)>, <고간지(古干支)>, <어부사(漁父辭)>, <제갈량비결(諸葛亮秘訣)>이라 이름한 글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필사본의 필사자와 필사 시기는 알 수 없다. <민탄가> 역시 작자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내용은 당시의 삼정(三政) 즉 전세·군정·환곡 제도의 문란 및 부패한 관리와 아전들의 횡포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작품의 배경 지역은 영남의 진주로, 제목 밑에 ‘진주(晉州)’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고, 내용에도 몇 차례 같은 지명이 언급되어 있다. 또 ‘이진풍(李晉豐)’이라는 고을 수령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경 시기는 조선시대 말로, 당시 세도를 부리던 장동김씨에 대한 비난 및 순종대왕(純宗大王)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지만 작품에 사용된 일부 어사로 미루어 필사 시기는 이보다 상당히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길이는 4음보 1행 기준 134행인데, 중간에 더러 2음보 1행구가 섞여 있다. 필사된 내용 중에 부정확한 표기 및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말들이 간혹 보여 현대어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문]

죽을박가 할일업네 죽을터니 되거더면
아물하면 오직하가 이런일을 허논놀들
우리몬 저겨보시
이노리를 돌려듯고 可否間의 말들하소

漁父辭

天生我才 쓸뉘업서 世上名利 하직하고
商山風景 보리보고 四皓遺迹 닷토이라
人間富貴 절노두고 物外烟霞 興을제위
靑蘿烟月 뒤사립을 白雲深處 다더두고
寂寂松林 기증난다 廖廖雲壑 제뉘오라
烟深澗北 市朝멀고 桂花山南 多事적다
扣枻乘流 내려가니 白蘋紅蓼 경조티고
長長釣絲 한낙다를 落照江天 비겨시니
九陌風塵 미친그별 一竿漁翁 니몰뉘아
泛泛蒼波 니니흥을 碌碌世人 알이업다
銀鱗玉尺 쉼난고되 野樹江天 훈비시다
巨口細鱗 낙거니니 松江鱸魚 흘비손야
蘆花霜葉 낙되거더 暮江煙霞 비을미고
十里波岸 니러가니 白鷗飛去 쏜이로다

芒鞋閒步 夕陽길에 三節竹枝 손니쥐고
洞壑松聲 구름속에 草堂柴扉 드러가니
琴書消日 흐던고딧 有酒盃樽 흐엿던고
登高舒嘯 오날하고 臨流賦詩 닌일하자
樵然玉山 취후후에 石頭閑眠 잠을드러
鶴唳一聲 제돌은니 桂月三更 불가엇다
唐虞天地 이안인가 葛天民氓 나썩이다
長歌短歌 두어곡에 一盃一盃 다시먹고
信步花鳴 씩씩하고 閑眠苔磯 날날하니
江湖雲林 니닌흥을 鷗鷺猿鶴 썩이안다
靜裡風月 닌을커은 魚舟生涯 뉘가알니
蘭生幽谷 物理업고 雲在高山 집이업다
∞ ∞ 山中 흥가흐딧 朝採紫芝 아적먹고
塞埜溪上 景物조흔딧 夕釣江魚 전역먹고
世上名利 다벌이고 物外江山 외머기며
千載萬載 千萬載 如此如此 늘글이라

[현대역]

죽을 밖에 할 일 없네. 죽을 터가 되게 되면
 암울하면 오죽할까? 이런 일을 하는 놈들,
 우리 먼저 죽여 보세.
 이 노래를 돌려 듣고 가부간에 말들 하소.

漁父辭

천생아재(天生我才) 쓸데없어 세상명리(世上名利) 하직하고,
 상산풍경(商山風景) 바라보고 사호유적(四皓遺迹)¹ 다투리라.
 인간부귀(人間富貴) 절로 두고 물외연하(物外烟霞) 흥에 겨워,
 청라연월(靑蘿烟月) 대사립을 백운심처(白雲深處) 달아 두고,
 적적송림(寂寂松林) 개 짓는다. 요요운학(寥寥雲壑) 제 뉘 오랴.
 연심간북(烟深澗北) 시조(市朝)² 멀고 계화산남(桂花山南) 다사(多事) 적다.
 구예승류(扣柁乘流) 내려가니 백빈홍료(白蘋紅蓼) 경 좃고,
 장장조사(長長釣絲) 한 낙대를 낙조강천(落照江天) 비겼으니,
 구맥풍진(九陌風塵)³ 미친 기별 일간어옹(一竿漁翁) 내 몰라라.
 범범창파(泛泛蒼波) 이내 흥을 녹록세인(碌碌世人) 알 리 없다.
 은린옥척(銀鱗玉尺) 뛰는 곳에 야수강천(野樹江天) 한 빛이다.
 거구세린(巨口細鱗) 낚아내니 송강노어(松江鱸魚)⁴ 비할쏘냐.
 노화상엽(蘆花霜葉) 낚대 걸어 모강연하(暮江煙霞) 배를 매고,
 십리파안(十里波岸) 내려가니 백구비거(白鷗飛去)뿐이로다.
 망혜한보(芒鞋閒步) 석양 길에 삼절죽지(三節竹枝) 손에 쥐고,
 동학송성(洞壑松聲) 구름 속에 초당시비(草堂柴扉) 들어가니,
 금서소일(琴書消日) 하던 곳에 유주배준(有酒盃樽) 하였던고.
 등고서소(登高舒嘯) 오늘하고 임류부시(臨流賦詩) 내일 하자.
 초연옥산(樵然玉山)⁵ 취한 후에 석두한면(石頭閑眠) 잠을 들어,
 학려일성(鶴唳一聲) 제 들리니 계월삼경(桂月三更) 밝아 있다.
 당우천지(唐虞天地)⁶ 이 아닌가? 갈천민맹(葛天民氓)⁷ 나뿐이다.
 장가단가(長歌短歌) 두어 곡에 일배일배(一盃一盃) 다시 먹고,
 신보화명(信步花鳴)⁸ 때때하고 한면태기(閑眠苔磯) 날로 하니,
 강호운림(江湖雲林) 이내 흥을 구로원학(鷗鷺猿鶴)⁹뿐이 안다.
 정리풍월(靜裡風月) 내 읊거늘 어주생애(魚舟生涯) 누가 알리.
 난생유곡(蘭生幽谷) 물리(物理) 없고 운재고산(雲在高山) 집이 없다.
 ∞ ∞ 산중(∞ ∞ 山中)¹⁰ 한가하되 조채자지(朝採紫芝) 아침 먹고,
 새대계상(塞埜溪上) 경물 좋은 데 석조강어(夕釣江魚) 저녁 먹고,
 세상명리(世上名利) 다 버리고 물외강산(物外江山) 외며 가며
 천재만재(千載萬載) 천만재(千萬載) 여차여차(如此如此) 늙으리라.

[각주]

- 1) 사호(四皓) : 중국 한(漢)나라 고조(高祖) 때 상산(商山)에 숨은 네 노인. 곧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甬里先生).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다고 하여 호(皓)라 하였다.
- 2) 시조(市朝)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물건이 많이 모이는 곳.
- 3) 구맥(九陌) : 중국 한(漢)나라의 서울 장안성(長安城) 안에 있던 아홉 개의 큰 길.
- 4) 송강노어(松江鱸魚) : 중국 상해시 송강현의 송강에서 나는 농어.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 5) 옥산(玉山) : 풍채가 수려한 사람.
- 6) 당우천지(唐虞天地) : 중국의 요(堯)와 순(舜)이 다스리던 세상.
- 7) 갈천민맹(葛天民氓) : 갈천씨(葛天氏)의 백성. 갈천씨는 무위(無爲)로써 천하를 잘 다스렸다는 중국 상고의 제왕.
- 8) 산보화명(信步花鳴) : 산보화명(散步花鳴 :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산보함)의 뜻인 듯함.
- 9) 구로원학(鷗鷺猿鶴) : 갈매기와 백로와 원숭이와 학.
- 10) ∞∞산(∞∞山) : 중국의 백이(伯夷)·숙제(叔齊) 형제가 절의를 지키며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수양산(首陽山)을 말하는 듯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